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걷기대회

"통계는 현재·미래의 나침반"

"건강을 함께 지켜요"

■ 호남지방통계청

만능 스포츠맨 이대형 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호남지방통계청 직원들이 가을의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 태어난 호남지방통계청이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올해 2월 기관 광역화에 따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과 전북 및 제주통계사무소의 통합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호남지방통계청으로 확대되면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동호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7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마라톤 동호회도 대회 참가를 통해 직원들의 융합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팀의 실력파로 꼽히는 박민식 씨를 비롯해 25명의 회원이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올 2월 광역화로 새 출발

만능 스포츠맨으로 통하는 이대형 청장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직원들과 호흡을 맞출 계획이다. 하프 코스에 도전장을 낸 이 청장은 오는 10월 춘천마라톤 대회 준비도 하고 있을 만큼 마라톤 마니아다.

틈틈이 쌓아온 마라톤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나선 이 청장은 "마라톤을 통해 건강은 물론 직원들과 호흡도 맞추고, 시민들과

신속·정확한 통계 서비스

함께 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청장은 또 "통계는 현재와 미래를 여행할 때 나침반과 같은 존재다"며 "마라톤을 통해 배운 끈기와 인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통계를 신속·정확하게 생산하여 보다 이용이 편리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먼길을 오는 회원도 있다. 얼마전 대전으로 발령을 받은 총무 문범주 씨는 반가운 이들과의 질주를 위해 대회 당일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문 씨는 "같이 만나고 화합하는 게 좋아 마라톤을 시작했다"며 "멀리 떨어지게 됐지만 마라톤을 통해 친분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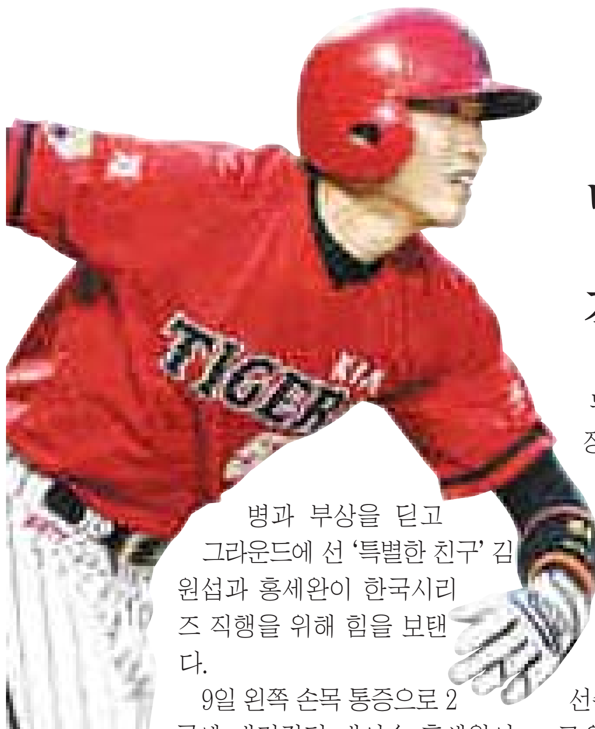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린 단짝"… KIA 가을잔치 힘 보탠다

◀김원섭 78년생 동갑내기 '특별한 친구' 홍세완▶

만성간염·고질적 부상 씨름 '닮은꼴'

간호사 출신 '내조의 여왕' 덕에 부활



병과 부상을 딛고 그라운드에 선 '특별한 친구' 김원섭과 홍세완이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해 힘을 보탠다.

9일 왼쪽 손목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갔던 내야수 홍세완이 17일 만에 1군 엔트리에 합류했다.

지난 5월5일 목동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645일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왔던 홍세완은 다시 한 번 부활을 위한 날개짓을 펴게 된다.

홍세완의 복귀가 가장 반가운 이는 외야수 김원섭이다. 미야자키 전지훈련에서도 꼭 붙어 다니며 올 시즌 각오를 다졌던 두 선수는 함께 가을 잔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나이는 78년생 동갑. 생일이 빠른 홍세완이 학교를 1년 일찍 가면서 형·동생 사이지만 두 아내도 친자매같이 지내는 등 둘도 없는 단짝이다.

두 선수는 닮은 꼴이 많다. 홍세완은 장충고과 성균관대, 김원섭은 배명고와 단국대를 졸업한 서울출신이다.

간호사 출신의 아내를 얻은 두 선수는 7일 김원섭이 득남하면서 똑같이 1남1녀의 아버지가 됐다.

두 선수에게 '고질병'도 빼놓을 수 없는 공통분모다. 김원섭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만성간염을 앓고 있다.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간수치가 올라 종종 병원신세를 져야 한다.

홍세완도 고질적인 부상과 씨름하고 있다. 2003년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끊여져 수술을 받았고, 2005년과 2007년에는 오른쪽 무릎부상으로 또 다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내조의 여왕' 덕분에 간염과 부상이라는 높은 벽을 뛰어 넘어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홍세완에게 아내 김현주씨는 긴 재활의 시간을 버티게 해 준 힘이다. 그라운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아내는 산속에서 홀로 재활을 할 때 문자로 경기 상황을 알려주면서 홍세완을 격려하는 등 복귀의 일등공신이다.

김원섭도 아내가 늘 고맙다. 병상에서 환자와 간호사로 만난 아내 이승희씨는 남편이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세 번의 이사를 하면서도 김원섭이 이삿짐을 옮겨본 적이 없다. 원정을 갈 때 아내가 홀로 이사를 하곤 했다. 7일에는 휴식날인 남편이 쉴 수 있도록 김원섭을 깨우지 않고 홀로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을 정도다.

8일 경기장에 나서는 두 선수의 각오는 남달랐다.

1군 통보를 받았던 홍세완은 뇌수막염 때문에 수술을 한 10개월 된 아들의 CT 촬영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김원섭은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만났다.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특별한 친구' 홍세완과 김원섭은 이제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 같이 걸음을 걷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용은-위창수 태극마크

11월 골프 월드컵 한국대표 출전

〈양용은〉

〈위창수〉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월드컵 골프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로이터통신은 "11월26일부터 4일간 중국 선전 미션힐스골프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골프대회에 양용은과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가 팀을 이뤄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는 대회 조직위원회 발표를 보도했다.

양용은은 조직위원회를 통해 "PGA 투어에서 절친하게 지내는 위창수와 함께 대회에 나가게 돼 기쁘다. 둘이 힘을 모아 한국과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8개 나라가 출전하는 골프 월드컵에 한국은 지난해 김형태(32·테일러메이드), 배상문(23·키움증권)이 나갔지만 26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이대명 50m 권총 한국 新

한국 사격의 기대주 이대명(21·한국체대)이 남자 50m 권총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국가대표 이대명은 8일 태릉사격장에서 열린 제18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첫날 남자 대학부 50m 권총에서 합계 674.7점(본선 572점+결선 102.7점)을 쏴 한국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우승을 차지했다.

진종오(KT)가 지난 4월 2009 월드컵사격대회에서 세운 종전 한국 기록(674.6점)보다 0.1점 더 많았다.

'포스트 진종오'의 대표 주자인 이대명은 남자 50m 권총 및 10m 공기권총 국내 랭킹에서 세계 1인자인 진종오를 모두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이대명은 또 50m 권총 단체전에서도 한국체대를 4년 연속 1위에 올려놓으며 이번 대회 첫 2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개인전에서는 올해 열린 메이저대회 대학부에서 4연승을 달렸다. 남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에서는 김종현(창원시청)이 합계 701.3점(본선 599점+결선 102.3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리듬에 맞춰
벨기에의 리에세로테 디엘스가 8일(한국시간) 일본 미에현 이세에서 열린 리듬체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로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한·일 챔피언 11월 중순 日서 맞대결

한국과 일본프로야구 우승팀이 격돌하는 한일 챔피언전이 11월 중순 일본에서 열리게 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프로야구 실행위원회가 한일 프로야구 우승팀 간 경기를 11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일본 프로야구 관계자들은 오는 1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방문해 개최 일자와 장소를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도 "지난달 4개국 프로야구 리그 사무총장 회의에서 11월 중순에 일본에서 열기로 대략 합의했다"며 "일본 관계자들이 오는 14일 방한하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챔피언전은 아시아시리즈가 적자로 없어지면서 올해 처음 열리게 됐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각국 챔피언이 참가한 아시아시리즈는 2005년 시작됐으나 지난해 2억엔 가까이 적자를 내면서 중단됐다. /연합뉴스

윤석민 어깨 통증 2군행… KIA 비상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어깨 통증으로 8일 2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5일 두산전 등판 이후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윤석민은 7일 서울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결과 부종이 발견되면서 엔트리가 말소됐다.

윤석민은 재활군에 머물며 열흘가량 휴식을 취한 뒤 복귀를 준비하게 된다.

7월19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뒤 7연승을 달렸던 윤석민은 5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3과3분의1이닝 동안 10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순고 투수 이승현 계약금 1억 LG행

동성고 유경국 9천만원 계약

지난달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야구 LG 트윈스에 2순위에 지명된 화순고 투수 이승현이 8일 계약금 1억원, 연봉 2천400만원에 트윈스와 계약했다.

8월18일 전체 1순위로 뽑은 고려대 사이드암 투수 신정락과 계약금 3억원에 사인한 LG는 이날 투수 유경국(9천만원·동성고), 이성진(7천만원·경남고), 포수 이태원(6천만원·동국대) 등 지명 선수 10명과 계약을 모두 마쳤다. /연합뉴스